

고자질하는 심장

The Tell-Tale Heart

아서 코난 도일 (1859-1930)

1843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6-15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Edgar Allan Poe, "The Tell-Tale Heart" (1843)

저자

에드거 앨런 포 (Edgar Allan Poe, 1809-1849)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2148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06-15

번역 정책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빅토리아 시대 추리소설 특유의 격조와 긴장을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입니다!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아주, 아주 끔찍할 정도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왜 제가 미쳤다고 말하는 겁니까? 병 때문에 감각이 예민해진 것이지, 결코 감각이 파괴되거나 무뎠진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청각이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지옥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제가 왜 미쳤다는 말입니까?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건강하고 차분하게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란 말입니다.

그 생각이 처음 어떻게 내 머릿속에 들어왔는지 말하기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단 그 생각이 자리 잡자, 밤낮으로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도, 어떤 걱정 때문이었던 것도 아니다. 나는 노인을 사랑했다. 그는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적도, 모욕을 준 적도 없었다. 그의 금을 탐낸 것도 아니었다. 내 생각에 범인은 그의 눈이었다! 그래, 바로 그 눈이었다! 그는 독수리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막이 씌워진 듯 흐릿하고 창백한 푸른 눈 말이다. 그 눈길이 나에게 닿을 때마다 내 피는 차갑게 식어 내려갔다. 그래서 나는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 결심을 굳혔다. 노인의 목숨을 앗아감으로써, 저 눈을 영원히 없애버리기로 말이다.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당신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겠지요. 미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법이니깐요. 하지만 당신은 나를 직접 보았어야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했는지, 얼마나 신중하고 앞날을 내다보며, 또 얼마나 치밀하게 위장하며 일을 진행했는지 말입니다! 노인을 죽이기 전 일주일 동안,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노인에게 친절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자정 무렵이면, 나는 노인의 방문 빗장을 돌려 문을 열었습니다. 오, 정말이지 아주 조심스럽게 말입니다! 머리가 들어갈 만큼 틈을 만든 뒤에는, 빛이 전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뚜껑을 꼭 닫은 어두운 등불을 밀어 넣고 내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오, 내가 얼마나 교묘하게 머리를 밀어 넣었는지 보았다면 당신은 분명 웃음을 터뜨렸을 겁니다! 나는 노인의 잠을 깨우지 않으려고 아주,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머리 전체를 틈 사이로 밀어 넣어 침대에 누운 노인을 볼 수 있을 때까지 무려 한 시간이나 걸렸습니다. 하! 미친 사람이 이토록 영리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가 방 안으로 충분히 들어가면, 나는 조심스럽게, 정말이지 아주 조심스럽게 등불을 열었습니다. 경첩에서 소리가 날까 봐 아주 조심하면서 말입니다. 나는 가느다란 빗줄기 하나가 그 독수리 같은 눈에만 떨어지도록 딱 그만큼만 등불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무려 7일 밤 동안, 매일 밤 자정마다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언제나 감겨 있었고, 그래서 일을 저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괴롭힌 건 노인이 아니라, 바로 그 사악한 눈이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날이 밝으면, 나는 당당하게 방으로 들어가 노인에게 용기 있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며 밤새 별일 없었는지 묻기도 했지요. 그러니 당신도 알다시피, 매일 밤 12시 정각마다 내가 잠든 노인을 훑쳐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면, 그 노인은 정말이지 대단히 통찰력 있는 노인이었을 겁니다.

여덟 번째 밤, 나는 평소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내 손길은 시계의 분침보다도 더 느리고 신중했다. 그날 밤만큼 내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한 적은 없었다. 승리감에 도취된 마음을 억누르기가 힘들 정도였다. 내가 문을 아주 조금씩, 조금씩 열고 있는데도 그는 내 은밀한 행동이나 생각을 꿈에도 모를 것이라니. 그 사실을 떠올리니 웃음이 절로 나왔다. 어쩌면 그가 내 웃음소리를 들었는지도 모른다. 침대 위에서 그가 마치 무언가에 놀란 듯 갑자기 몸을 뒤척였기 때문이다.

그 소리에 내가 움찔하며 물러났을 것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 방 안은 철쭉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강도를 맞을까 두려워 창문을 굳게 닫아걸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나는 그가 문이 열리는 것을 결코 볼 수 없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그 확신을 품고 문을 꾸준히, 아주 천천히 계속해서 밀어 열었다.

머리를 안으로 들이밀고 막 랜턴을 열려던 참이었다. 그때 엄지손가락이 양철 잠금장치에서 미끄러지고 말았다. 그 순간 노인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며 비명을 질렀다. "거기 누구냐!"

나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 시간 내내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사이 그가 침대에 눕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침대에 몸을 일으켜 앉은 채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마치 내가 밤마다 벽 속에서 들려오는 죽음의 시계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것처럼 말이다.

그때 희미한 신음 소리가 들렸다. 필시 죽음의 공포에 질린 신음이었다. 그것은 고통이나 슬픔 때문에 내뿜는 신음이 아니었다. 결코 아니었다. 경외심에 압도당했을 때 영혼 밑바닥에서 터져 나오는, 낮고 억눌린 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를 아주 잘 알았다. 세상 모두가 잠든 자정 무렵, 나 역시 공포에 휩싸여 정신을 못 차릴 때면 내 가슴 속에서도 그 소리가 무시무시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지곤 했으니까. 내가 그 소리를 잘 안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다. 나는 노인이 무엇을 느끼는지 알았고, 마음속으로는 낄낄거리면서도 그를 가엽게 여겼다.

노인은 처음으로 침대에서 뒤척이며 작은 소리가 났을 때부터 졸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깨어 있었다. 그 순간부터 공포는 노인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갔다. 노인은 그 공포에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여 보려 했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 노인은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을 것이다. '그저 굴뚝을 지나는 바람 소리일 뿐이야. 바닥을 지나가는 쥐 한 마리일 뿐이라고.' 혹은 '그저 귀뚜라미 한 마리가 한 번 울었을 뿐이야.' 그렇다. 노인은 이런 추측들로 스스로를 위로하려 애썼다. 하지만 모두 헛수고였다.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죽음이 노인에게 다가오며 검은 그림자를 드리워 희생양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인은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는 것이 없었음에도, 보이지 않는 그림자의 불길한 기운 때문에 내가 방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가 침대에 눕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긴 시간 동안, 나는 아주 인내심 있게 기다렸다. 그러다 나는 결심했다. 랜턴의 틈을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만 열어보기로 말이다. 나는 랜턴을 열었다. 얼마나 은

밀하고 또 은밀하게 움직였는지 당신은 상상조차 못 할 것이다. 마침내 랜턴 틈 사이로 거미줄 같은 희미한 빛줄기 하나가 새어 나왔고, 그 빛은 독수리 눈을 정면으로 비추었다.

그것은 열려 있었다. 아주 활짝, 아주 넓게 열려 있었다. 그것을 바라보는 내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그것을 아주 또렷하게 볼 수 있었다. 탁한 푸른빛을 띠는 그 눈 위에는 뼈저리게 소름 끼치는 흥측한 막이 덮여 있었다. 하지만 노인의 얼굴이나 다른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마치 본능에 따라, 그 저주받은 부위만을 정확히 겨냥해 빛을 비추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던가. 당신이 광기라고 오해하는 것은 사실 감각이 지나치게 예민해진 것뿐이라고 말이다. 자, 이제 들어보라. 낮고 둔탁하면서도 빠르게 울리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왔다. 마치 솜뭉치에 싸인 시계가 내는 소리 같았다. 나는 그 소리를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노인의 심장 박동 소리였다. 북소리가 군인의 용기를 북돋우듯, 그 박동 소리는 나의 분노를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나는 참으며 가만히 서 있었다. 숨조차 거의 쉬지 않았다. 랜턴도 움직이지 않고 붙들고 있었다. 눈동자에 빛줄기를 얼마나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시험하며 버텼다. 그사이 심장의 지옥 같은 두드림은 점점 거세졌다. 심장 소리는 매 순간 점점 더 빨라지고, 점점 더 커졌다. 노인은 분명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소리는 매 순간 점점 더 커졌다! 내 말을 잘 이해하고 있나? 내가 신경질적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정말 그렇다. 그런데 이제 이

깊은 밤, 그 오래된 저택의 무시무시한 정적 속에서 이토록 기괴한 소리가 들려오니, 나는 건잡을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럼에도 나는 몇 분 동안 더 참으며 가만히 서 있었다. 하지만 심장 박동은 점점 더,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그때 새로운 불안이 나를 엄습했다. 이 소리를 이웃이 듣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노인의 최후의 시간이 다 온 것이다! 나는 크게 비명을 지르며 랜턴을 확 열어젖히고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노인은 단 한 번, 딱 한 번 비명을 질렀다. 나는 순식간에 그를 바닥으로 끌어내린 뒤 무거운 침대로 그를 덮어버렸다. 일이 이만큼 진행된 것을 확인하고 나는 즐겁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한동안 심장은 둔탁한 소리를 내며 계속 뛰었다. 그렇다고 해서 괴롭지는 않았다. 벽 너머로는 들리지 않을 테니까. 마침내 소리가 멎었다. 노인은 죽었다. 나는 침대를 치우고 시신을 살폈다. 그렇다, 그는 돌처럼, 완전히 죽어 있었다. 나는 심장 위에 손을 얹고 한참 동안 그 상태로 있었다. 맥박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완전히 죽어 있었다. 이제 그 눈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여전히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신다면, 시신을 숨기기 위해 제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들으시면 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밤은 깊어갔고, 저는 서둘러 움직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우선 저는 시신을 토막 냈습니다. 머리와 양팔, 그리고 양다리를 잘라 냈습니다.

나는 방 바닥에서 판자 세 개를 들어내어, 그 사이의 틈새에 모든 것을 밀어 넣었다. 그리고 나서 판자를 다시 덮었는데, 아주 교묘하고도 치밀하게 맞추어 놓은 덕분에 그 누구의 눈도, 심지어 그 노인의 눈조

차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챌 수 없을 정도였다. 씻어내야 할 것도, 그 어떤 얼룩도, 피 한 방울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 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만큼 어리석지 않았으니까. 커다란 대야를 받쳐 두어 전부 받아냈으니 말이다. 하! 하하!

이 모든 작업을 마쳤을 때는 새벽 네 시였다. 한밤중처럼 여전히 어두웠다. 시계 종소리가 울리자마자 거리 쪽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문을 열어 내려갔다. 이제 내게 무엇이 두렵겠는가? 문을 열고 들어온 세 남자는 아주 정중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자신들이 경찰관이라고 소개했다. 밤사이 이웃이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범죄가 일어났다는 의심이 생겼고,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되자 이 경찰관들이 이곳을 수색하라는 명령을 받고 파견된 것이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신사들을 정중히 맞이했다. 비명 소리는 꿈속에서 내가 내지른 소리라고 설명했다. 노인은 시골에 가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나는 손님들을 데리고 집안 곳곳을 구경시켜 주었다. 그러고는 마음껏 수색해 보라고, 아주 철저히 찾아보라고 권했다. 마침내 나는 그들을 노인의 방으로 안내했다. 그곳에 보관된 노인의 보물들이 아무런 방해 없이 안전하게 놓여 있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나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열의를 보이며 방 안에 의자들을 가져다 놓았다. 손님들이 피로를 풀 수 있도록 그곳에 앉으라고 권했다. 그리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광기 어린 대담함에 사로잡힌 채, 나는 피해자의 시체가 놓인 바로 그 자리 위에 내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았다.

경찰관들은 만족한 기색이었다. 나의 태도가 그들을 안심시킨 모양이었다. 나는 유난히도 평온했다. 그들은 자리에 앉았고, 나는 쾌활하게 대답하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느꼈고, 그들이 어서 떠나주기만을 바랐다. 머리가 아파오더니 귀에서 이명이 들리는 듯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앉아서 수다를 떨었다. 이명은 점점 더 뚜렷해졌다. 소리는 계속되었고, 점점 더 선명해졌다. 나는 그 느낌을 떨쳐내려 더욱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고 점점 더 확실한 형체를 갖추어 갔다. 마침내 나는 그 소리가 내 귀 안에서 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의심할 여지 없이 내 얼굴은 아주 창백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더 유창하게, 더 높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그러나 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다. 내가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낮고 둔탁하면서도 빠르게 울리는 소리였다. 마치 시계를 솜뭉치로 감싸 놓았을 때 나는 소리와 같았다. 나는 숨을 몰아쉬었지만, 경찰들은 전혀 듣지 못하는 듯했다. 나는 더 빠르게, 더 격렬하게 말을 내뿜었다. 하지만 소음은 끊임없이 커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소한 일들을 두고 높은 톤으로 소리를 지르며 격하게 손짓하며 따져 물었다. 하지만 소음은 여전히 커져만 갔다. 왜 그들은 떠나지 않는 것일까? 나는 마치 그들의 관찰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 사람처럼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 안을 왔다 갔다 했다. 그럼에도 소음은 계속해서 커졌다. 오, 하느님! 내가 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나는 거품을 물고, 헛소리를 내뿜고, 욕설까지 퍼부었다! 앉아 있던 의자를 휘둘러 바닥에 긁으며 소리를 내보기도 했지만, 그 소음은 모든 것을 압도하며 끊임없이 커져

만 갔다. 소리는 점점 더, 더, 더 크게 울려 퍼졌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즐겁게 담소를 나누며 미소 지었다. 정말로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전능하신 하느님! 아니, 그럴 리 없다! 그들은 듣고 있었다! 의심하고 있었다!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은 나의 공포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 고통보다는 차라리 무엇이랄도 나았을 것이다! 이 조롱보다는 어떤 상황이라도 견딜 만했을 것이다! 나는 저 위선적인 미소를 더는 견딜 수 없었다! 비명을 지르거나 죽어야만 할 것 같았다! 그리고 지금—다시!—들어보라!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울리고 있다!

“이 악당들아!” 나는 비명을 질렀다. “더는 속이지 마라! 내가 저질렀다, 내가 했다! 바닥 판자를 다 뜯어내라! 여기다, 바로 여기란 말이다! 저건 그놈의 끔찍한 심장이 뛰는 소리다!”